테마칼럼 | 여성세계 | 정치브리핑 | 경제의 눈 | 문화향기

# 경제 양극화의 심각성과 과제

정 대 영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도저히 개인의 노력으로 빈곤탈출 가능성이 안보여서 절망하는 수많은 이웃을 놔두고 가진자만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한 것인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50년마다 희년(禧年)이라는 축제를 성대하게 열었다. 희년이 되면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자가 풀려나고 가난을 이유로 팔린 땅을 원래주인에게로 다시 되돌려 주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의 격차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권리를 찾아주고 억눌림에서 해방시켜 주는 주요제도로서 후대에 예수의 삶과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수천년전이나 지금이나 빈부의 격차에 의한 사회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최근들어 발표되는 각종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심해지는 가진자·못가진자 격차

2006년 가계수지 동향통계에 의하면 고소득 상위20%와 저소득가구하위 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비율이 7.64로 2003년 7.23보다 0.41포인트가 상승했다. 또한 총자산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총자산 지니계수는 1999년 0.586에서 2004년 0.638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통상 0.4를 넘으면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지역간 경제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1997~2004년 지역별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부산, 울산, 경남이 연평균 4.09%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3.93%로 뒤를이었지만 광주·전남은 1.93%로 전국평균 3%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지역경제의 격차 확대로 옮겨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상대빈곤 상태에서 1년안에 벗어나는 이른바 빈곤탈출 가구의 비율은 2002년 38.4%, 2003년 30.1%, 2004년 26.5%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더 심해서 2005년말 국민의 상위 3%가 전국 민유지면적의 59.3%, 가격의 43.5%를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97%의 몫과 비슷한 구조이고 집값이 오를수록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오른가격의 상당부분은 전월세 인상으로 전가되어 못가진자는 2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해도 경제는 살아갈 것인가?

대기업·중소기업간, 도시·농촌간, 지역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집가진자와 못가진자와의 사이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성장은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인생의 출발부터 격차가 커서 도저히 개인의 노력으로 빈곤탈출 가능성이 안보여서 절망하는 수많은 이웃을 놔두고 가진자만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한 것인가?

## 정부·경제주체, 해결 공감대 부터

우리모두 이런 쉽지 않는 심각한 과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인 것이다. 잠재적 화약고와 같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 기업, 경제주체 모두가 해결해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실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40만이 넘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장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를 위한 취업교육과 교육과정개선을 통해 경제적 기회의 평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직자도 눈높이를 낮추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희망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 사설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당연한 조치다

지방 광역도시와 중소도시 등 상당수 지역이 오는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수도권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가 1년마다 심의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해제를 요청할 경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곳은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지방 건설경기의 침체를 생각할 때 당연한 일로 그 시기를 더 앞당길 수는 없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책을 마련하면서 투기와는 거리가 먼 지방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지방경기 침체를 가속화했다. 실제로 광주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1만 세대에 가깝고 집값 상승률도 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그럼에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주택건설 경기를 빈사상태에 빠뜨리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 규제정책이 오히려 지방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

건설경기는 고용 등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따라서 지방의 부동산 정책은 신중하면서도 유연해야 한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데도 같은 잣대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영양실조인 사람에게 다이어트를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무리 좋은 약도 처방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의 부동산 정책만큼은 새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정책이 가져올 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해 상황에 따라 집행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검사 새 윤리강령 말보다 실천의지 보여라

법무부가 1일 '검사 윤리강령'을 전면 개정, 시행키로 했다. 현행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사안별로 해석한 '강령 운영지침'까지 만들었다. 검사의 행동과 처신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확립하려는 의지는 환영할만하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아서는 곤란하다. 검찰 등 법조계는 그동안 각종 비리에 휘말려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검사의 '거짓 진술 강요 의혹'까지 불거졌다. 새 윤리강령은 이러한 검찰사회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새 강령은 검사들의 행동기준을 담고 있다.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골프 및 식사, 여행 등 개인적 접촉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는 금품·향응 수수도 금지됐다. 수사사항이나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외부 기고와 발표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새 규정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운영지침을 개정, 보완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윤리강령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검찰과 법원은 그동안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행동강령'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하지만 법조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여전하다.

검사와 법관 등 법조계는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사법불신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다. 사법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없고 법치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새 윤리강령은 검찰의 자정선언이다. 검찰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강령을 실천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기 바란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서는 국민을 또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

## 의료 칼럼

# 꼬부랑 할머니가 없는 나라

안 수 영

골다공증. 우리에겐 너무 먼 병이 아닌가 하지만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다. 동요에도 나오는 옛날 꼬부랑 할머니 대부분은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주위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흔히 하시는 말씀이 "나도 젊었을 때는 키가 컸는데"라고 하시는 것을 한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대부분 웃으며 듣고 넘어가지만 실제 여성들 대부분이 젊었을 때보다 보통 3cm에서 15cm까지 키가 줄어든다고 한다.

골다공증이 일단 발생하면 치료하는데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약물복용을 해야 한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폐경이 끝난 여성에서 30%정도 발생하며 최근에는 과음과 흡연이 많은 중년 남성에게 조차 많이 발견된다.

골다공증 자체가 무서운 병은 아니지만 골다공증에 의한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인 척추골절은 심한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 큰 사고가 아니라도 사소한 넘어짐, 감기로 기침을 하다가,무거운 것을 든 뒤에도 쉽게 발생한다.

60세 이상 여성이 이 같은 일을 겪은 뒤 등에서 가슴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흔히 컥컥 '맞춘다'라고 표현함)이 생기면 십중팔구 골절이다.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고 아파서 기침도 하지 못하게 된다.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은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며칠 치료를 받거나 누워 있다가 다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체중에 의한 척추체의 심한 압박을 초래해 심한척추만곡·만성 통증·신경손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 같은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 척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집에만 누워 있거나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 너무 압박이 진행되어 치료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환자는 압박된 추체에 늑간 신경이 눌려 마약성 진통제에도 반응을 안할 정도로 심한 늑간 신경통에 시달리게 된다.

과거 골다공증 압박골절 치료는 불편한 보조기를 3개월 착용 하면서 안정하거나 허리를 기구로 고정하는 수술 이었다.

반면 최근에는 척추성형술 및 풍선성형술이 기존 치료의 단점을 보완한 치료법으로 많이 시행된다. 보조기 착용이 필요 없으며 장기간의 치료도 필요 없다.

특히 지난 1999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풍선척추성형술은 척추강내로 뼈시멘트의 유출이나 폐색전증등 치명적 합병증이 거의 없는 가장 안전한 치료법이며 낮아진 추체의 높이를 원래대로 복원 시킬 수도 있는 뛰어난 치료법이다.

시술 후 1시간이면 마음대로 거동이 가능하며 시술 당일 또는 최대 2~3일이면 퇴원이 가능하다. 단점이라면 비싼 비용이었는데 지난해 8월부터 보험급여가 가능해져 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위 어머니나 할머니가 깜짝 깜짝 놀라는 배부통이 있다면 크게 다치신 일이 없더라도 한번쯤은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을 생각해보자. 또한 폐경이 지난 여성이라면 미리미리 정기적인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하여 사소한 외상에 의한 심각한 골다공증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한다.

〈나주한국병원 신경외과 원장 〉

---

## 기 고

# 주인의식으로 산림을 가꾸고 사랑하자

박 래 삼

바야흐로 산불조심기간 (봄철(2·1~5·15)·가을철(11·1~12·15))이 돌아왔다. 지구온난화로 이제는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봄철 및 가을철에는 바쁜 농번기철이라 유난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87건의 산불이 발생해 최근 10년 대비, 164%나 증가했다. 특히 대형화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방지 공중계도 및 감시비행을 산불발생위험시간대(오전 11시~오후 3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림은 인간에게 맑은 물·맑은 공기·목재·임산물을 제공하며 홍수를 조절하고 우리 몸에 안 좋은 일산화탄소와 환경 오염으로부터 정화작용 하는 등 인간에 아주 큰 공익적 혜택을 주고 있다.

수목들이 해충이나 미생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발산하는 독특한 '향균물질'인 피톤치드( phytoncide)는 숲의 생명력으로 심신을 정화하고 자연치유력을 높여준다. 산림은 인간과 더불어 영원히 공존해가는 종속관계가 아닌 평등관계라 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강원도지역 홍수로 국가재난사태까지 몰고 온 까닭이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산 정상에서 하단부에 이르기까지 물 흐름의 방향을 바꿔놓는 등 무분별한 난 개발 탓이 크다.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산림훼손의 주범이 우리 인간임을 반성하면서 산림을 소중히 보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한번 타버린 산림이 회복되려면 적게는 30년, 길게는 100년이 지나야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국익에 보탬이 되는 산림을 공익적, 경관적, 환경적 기능으로 잘 가꾸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산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히 초동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산불진화 및 다양한 산림사업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각종 구조교육을 이수한 공중진화대원(Aerial Fire Fighting Teme)들을 이용한 항공산악구조대를 각 구역별로 운영, 편성하여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이야 말로 명실상부한 최후의 보루 산림의 파수꾼들이다.

특히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전남과 제주도 및 경상도 일부 산림을 지키는 첨병으로서 어느 때, 어디서건 상황이 발생하면 30분 내에 출동해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산불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듯이 국민 스스로가 산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재앙을 주는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림을 가꾸고 사랑한다면 아름답고 푸르른 산림은 인간에게 아주 커다란 혜택을 무한정 줄 것이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원〉

---

## 無 等 鼓

### '백스캐터'

주자(朱子)는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이라고 설파했다. 학문을 하는 자세를 일갈(一喝)한 것이다. 이 말은 '쇠나 돌도 뚫을 수 있다'(金石亦透)는 말과 같이 쓰인다. 하지만 요즘 네티즌들은 '정신일도 여의가투'(精神一到 女衣可透)라고 해석했다. 정신을 집중하면 여자 옷을 투시(透視)해 알몸을 볼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알몸 투시'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됐다. 적외선을 이용한 카메라·선글라스·VOD가 등장하면서 나체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푸르나(Pruna)·동키호테(donkeyhote) 등 P2P(peer to peer. 파일공유 프로그램)에서 '투시'라는 낱말을 입력하면 '수영장' '대중상' '미스코리아' '레이싱 걸'…등등, 온갖 장소와 모델·영화배우·탤런트들의 나체 사진이 나온다.

'여의가투(女衣可透)'는 독일의 빌헬름 뢴트겐에서 비롯됐다. 음극선(陰極線)을 연구하던 1895년, 시안화백금바륨을 칠한 널빤지가 형광(螢光)을 내는 것을 보고 'X선'을 발견한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22일, 그는 '20세기 과학사' 첫 장에 수록될 X선 사진 한 장을 찍었다. 반지를 낀 아내의 가늘한 손가락 뼈였다.

그 후, 누드를 볼 수 있는 안경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면서 여성들이 불안에 떨었다. 영국의 한 회사는 'X선이 통과하지 않는 내의'를 출시해 한 몫을 잡았다. 어쨌거나, 뢴트겐은 X선을 발견한 업적으로 1901년 최초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가 됐다. (아서 셧클리프 '유쾌한 과학사')

최근 미국 교통안전국(TSA)이 알몸을 투시할 수 있는 '백스캐터'(Back scatter)를 피닉스 공항에 설치했다. TSA는 조만간 LA와 뉴욕 케네디 공항에도 대당 10만 달러에 이르는 이 첨단 X선 촬영기 계를 도입한다는 소식이다.

남의 알몸을 훔쳐보는 일은 흥미롭고 즐거울 것 같다. 하지만, 내 빈약한 몸매를 다른 사람이 지켜본다는 것은 정말 싫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

###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고로쇠 채취 그렇게 까지 해야하는가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려는 인파들이 늘어난다. 새 잎사귀들을 만들려고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이 수액이되어 물관을 타고 가지 끝으로 내달리는 고로쇠 나무에 빨대를 꽂아 물을 빼먹는 유행이 된지 오래됐다.

전국에서 조금만 유명한 고로쇠나무 군락지에 가 보면 마치 링거주사를 맞는 것처럼 기다란 고무관을 통해 수액을 빼내어 버린다. 아무리 나무의 생장에 지장이 없다고 하나 나무에는 꼭 필요한 수액일텐데 살아있는 곰의 쓸개즙을 받아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단체들이 고로쇠 수액채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들척지근한 맛이지만 몸에 좋다는 풍문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고로쇠물을 마구잡이식으로 빼내 마신다.

이제 나무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했으면 한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촌동

### 알바생들 최소한 권리 정도는 알아야 불편 겪지 않는다

우리 대학에서 발행하는 대학신문에서 방학 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권리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고 알아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권리를 못찾고 있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라 해도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50% 가산 지급, 1년 이상 일할 때 퇴직금 지급, 여성인 경우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 생리휴가 부여 등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돼 있다. 젊은이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용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직업 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학생들도 있고, 먼저 사회를 경험해 보기 위해 일을 시작한 학생들도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미영·목포시 해안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 | | | |
|---|---|---|---|
| 편집국안내 | | 사 회 2 부 | 2200-619 |
| 〈대표 FAX | 222-4918〉 | 〈F A X | 227-0118〉 |
| 편 집 부 | 2200-629 | 문화생활부 | 2200-626 |
| 정 치 부 | 2200-616 | 여론매체부 | 2200-628 |
| 경 제 부 | 2200-617 | 체 육 팀 | 2200-627 |
| 사 회 1 부 | 2200-618 | 사 진 부 | 2200-690 |
| 〈F A X | 222-4267〉 | 조 사 부 | 2200-570 |

| | | | |
|---|---|---|---|
| 총 무 부 | 2200-511 | 문화사업국 | 2200-541 |
| 〈F A X | 222-8005〉 | 〈F A X | 222-0195〉 |
| 광 고 국 | 2200-521 | 판 매 부 | 2200-551 |
| 〈F A X | 227-9500〉 | 〈F A X | 227-9500〉 |
| 디 자 인 | 2200-536 | 서 울 지 사 | 02-773-9331 |
| 사 업 2 부 | 2200-552 | 〈F A X | 02-773-9335〉 |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